

다양한 연관관계 매핑

목차

- 연관관계 매핑시 고려사항 3가지
- 다대일 [N:1]
- 일대다 [1:N]
- 일대일 [1:1]
- 다대다 [N:M]
- 실전 예제 - 3. 다양한 연관관계 매핑

연관관계 매핑시 고려사항 3가지

- 다중성
- 단방향, 양방향
- 연관관계의 주인

다중성

- 다대일: @ManyToOne
- 일대다: @OneToMany
- 일대일: @OneToOne
- 다대다: @ManyToMany

단방향, 양방향

- 테이블

- 외래 키 하나로 양쪽 조인 가능
- 사실 방향이라는 개념이 없음

- 객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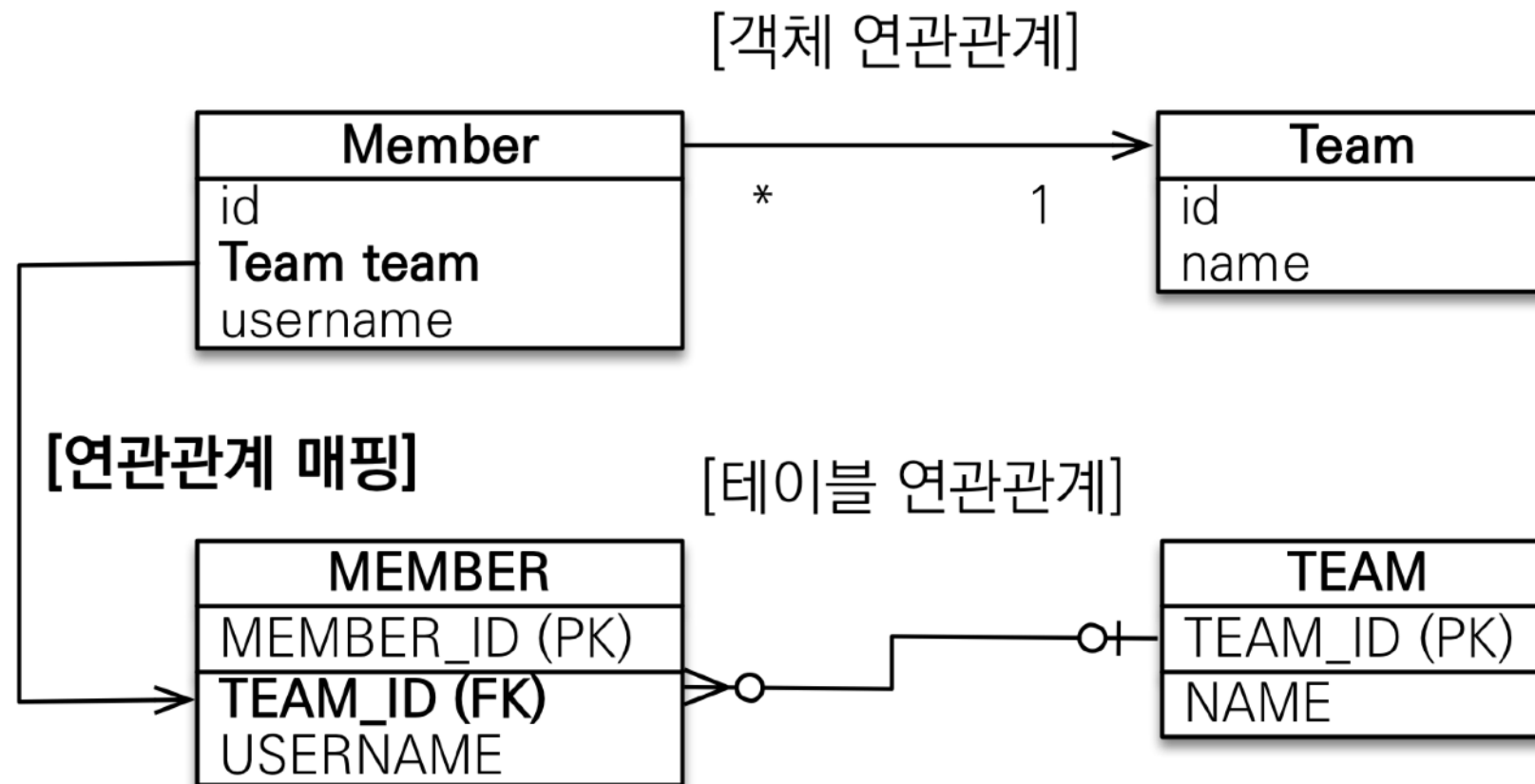
- 참조용 필드가 있는 쪽으로만 참조 가능
- 한쪽만 참조하면 단방향
- 양쪽이 서로 참조하면 양방향

연관관계의 주인

- 테이블은 **외래 키 하나**로 두 테이블이 연관관계를 맺음
- 객체 양방향 관계는 $A \rightarrow B$, $B \rightarrow A$ 처럼 **참조가 2군데**
- 객체 양방향 관계는 참조가 2군데 있음. 둘중 테이블의 외래 키를 관리할 곳을 지정해야함
- 연관관계의 주인: 외래 키를 관리하는 참조
- 주인의 반대편: 외래 키에 영향을 주지 않음, 단순 조회만 가능

다대일 [N:1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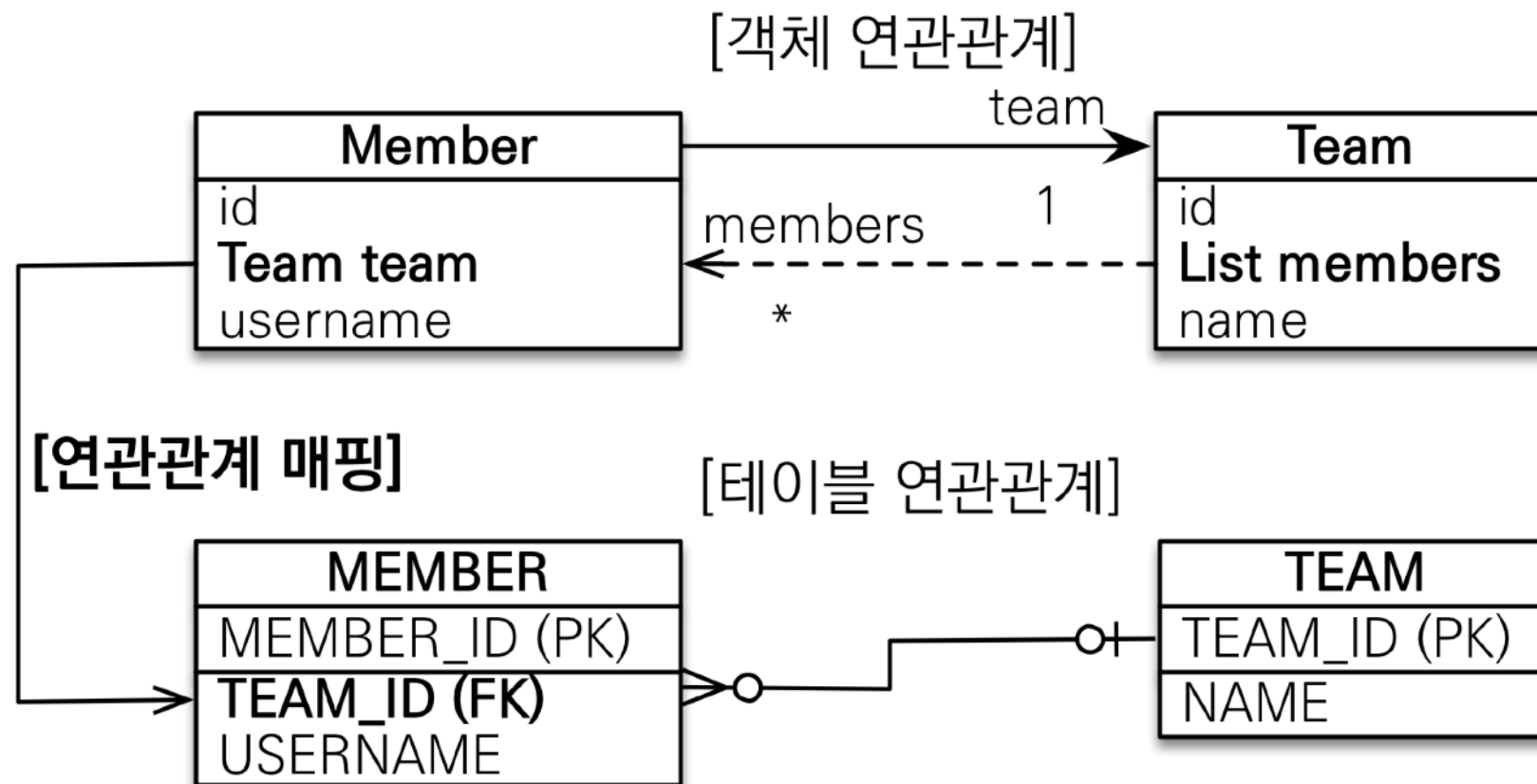
다대일 단방향



다대일 단방향 정리

-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관관계
- **다대일의 반대는 일대다**

다대일 양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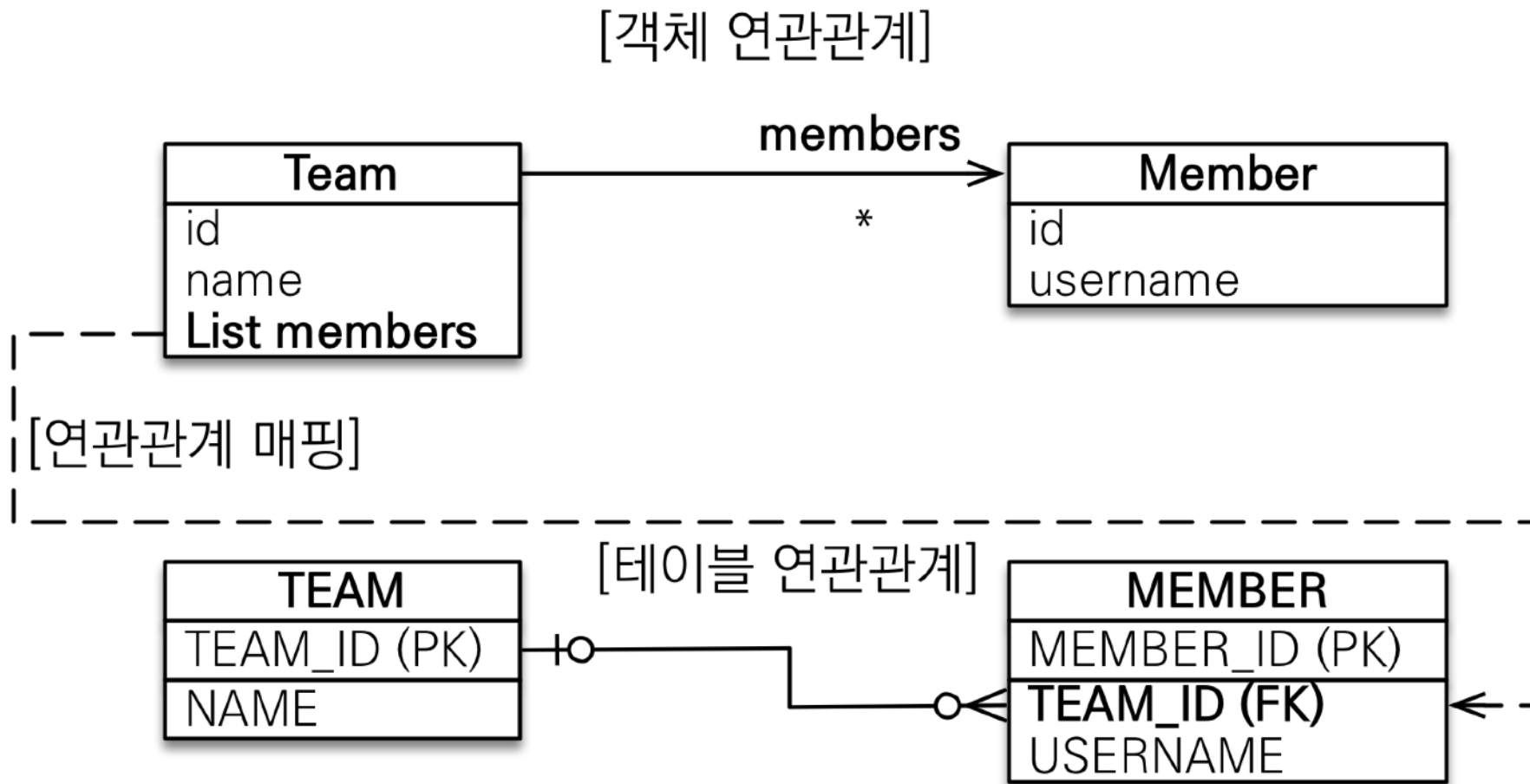


다대일 양방향 정리

- 외래 키가 있는 쪽이 연관관계의 주인
- 양쪽을 서로 참조하도록 개발

일대다 [1:N]

일대다 단방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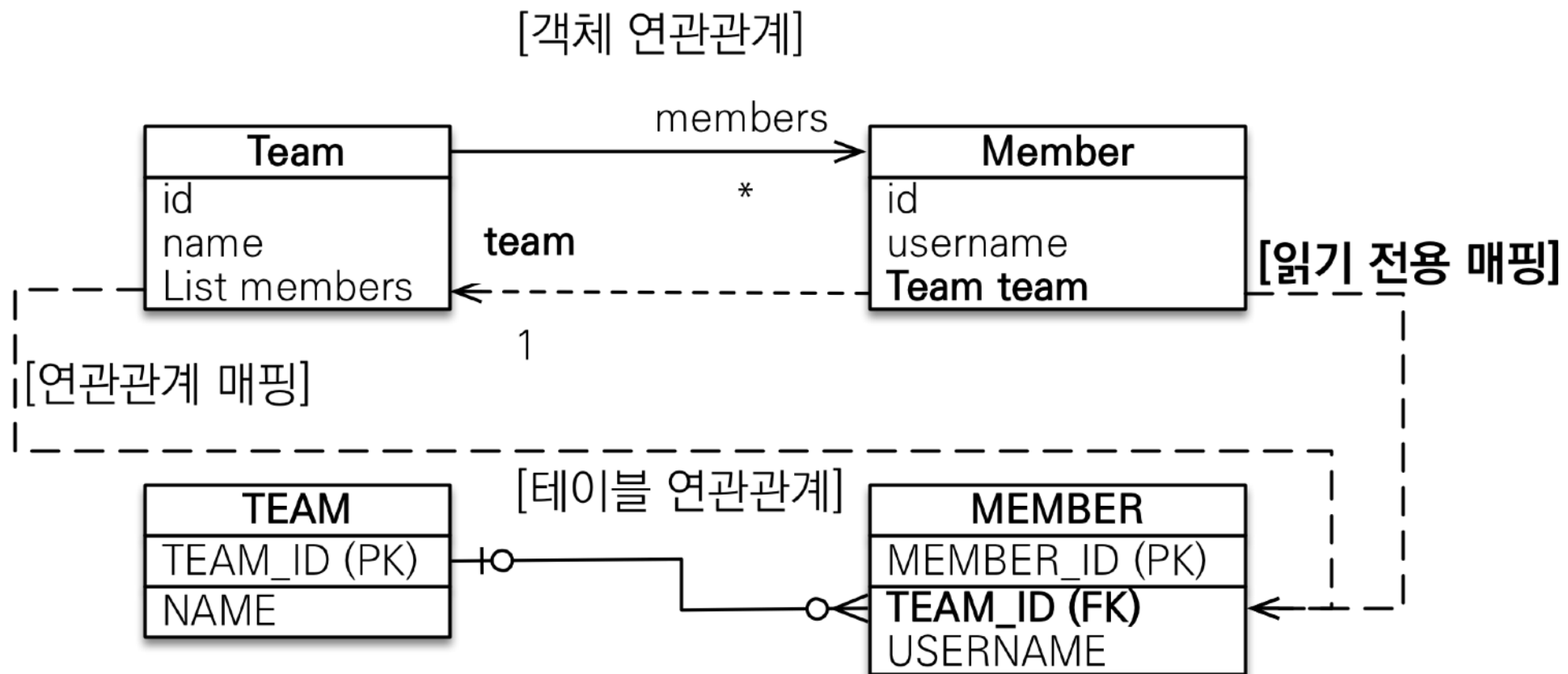
일대다 단방향 정리

- 일대다 단방향은 일대다(1:N)에서 **일(1)이 연관관계의 주인**
- 테이블 일대다 관계는 항상 **다(N) 쪽에 외래 키가 있음**
- 객체와 테이블의 차이 때문에 반대편 테이블의 외래 키를 관리하는 특이한 구조
- @JoinColumn을 꼭 사용해야 함. 그렇지 않으면 조인 테이블 방식을 사용함(중간에 테이블을 하나 추가함)

일대다 단방향 정리

- 일대다 단방향 매핑의 단점
 - 엔티티가 관리하는 외래 키가 다른 테이블에 있음
 - 연관관계 관리를 위해 추가로 UPDATE SQL 실행
- 일대다 단방향 매핑보다는 **다대일 양방향 매핑을 사용**하자

일대다 양방향



일대다 양방향 정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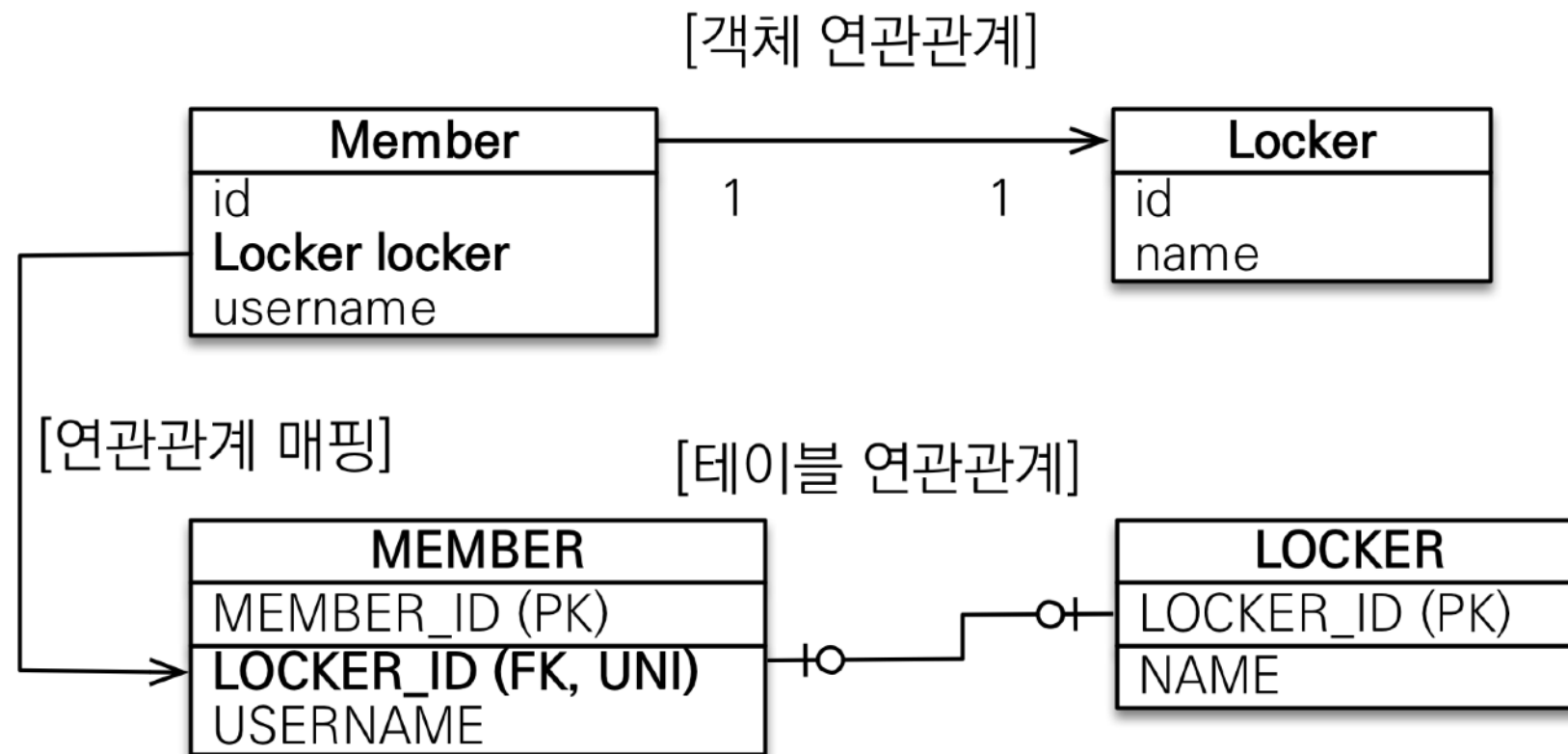
- 이런 매핑은 공식적으로 존재X
- @JoinColumn(**insertable=false, updatable=false**)
- 읽기 전용 필드를 사용해서 양방향 처럼 사용하는 방법
- 다대일 양방향을 사용하자

일대일 [1:1]

일대일 관계

- **일대일** 관계는 그 반대도 **일대일**
- 주 테이블이나 대상 테이블 중에 외래 키 선택 가능
 - 주 테이블에 외래 키
 - 대상 테이블에 외래 키
- 외래 키에 데이터베이스 유니크(UNI) 제약조건 추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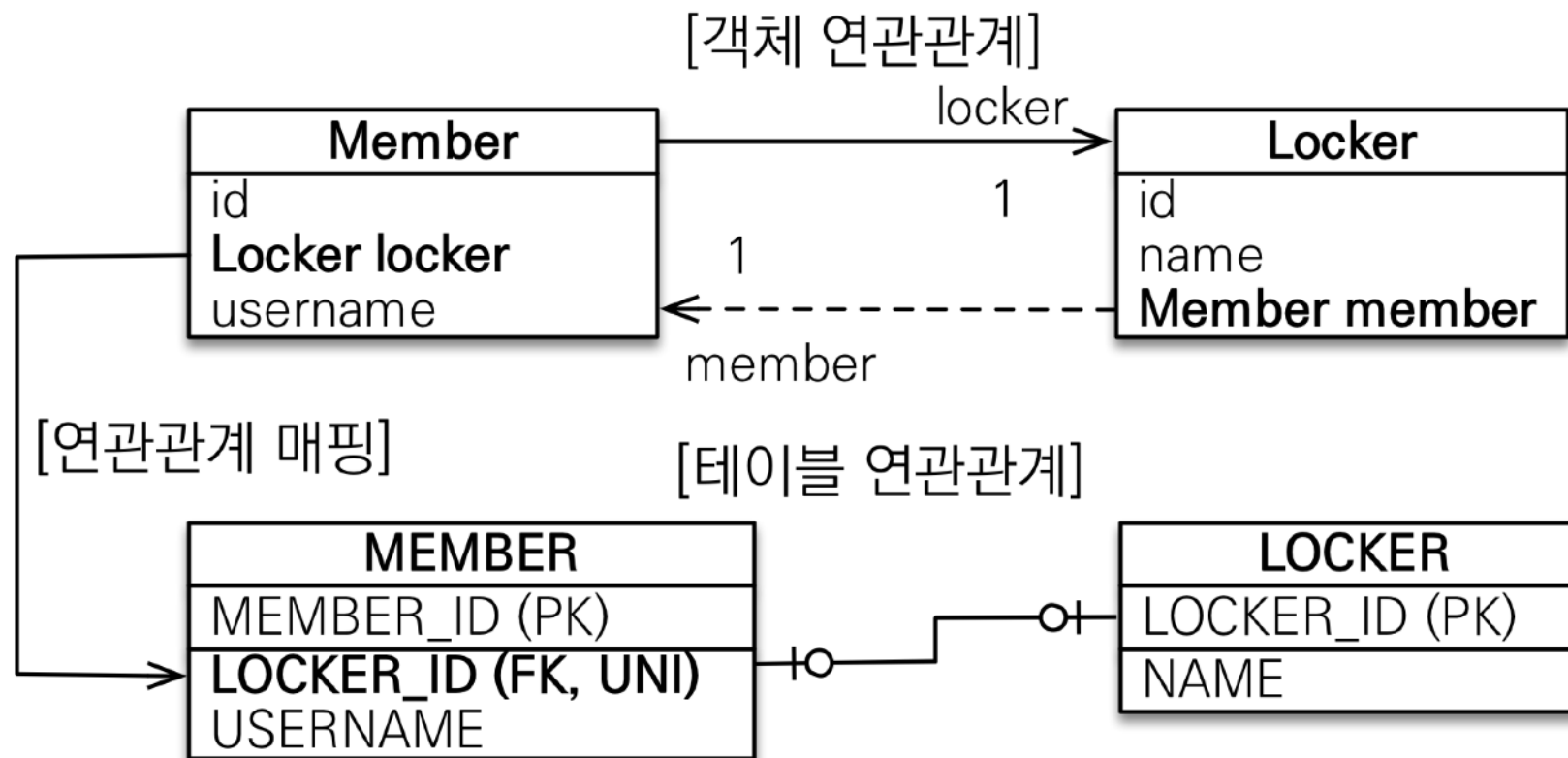
일대일: 주 테이블에 외래 키 단방향



일대일: 주 테이블에 외래 키 단방향 정리

- 다대일(@ManyToOne) 단방향 매핑과 유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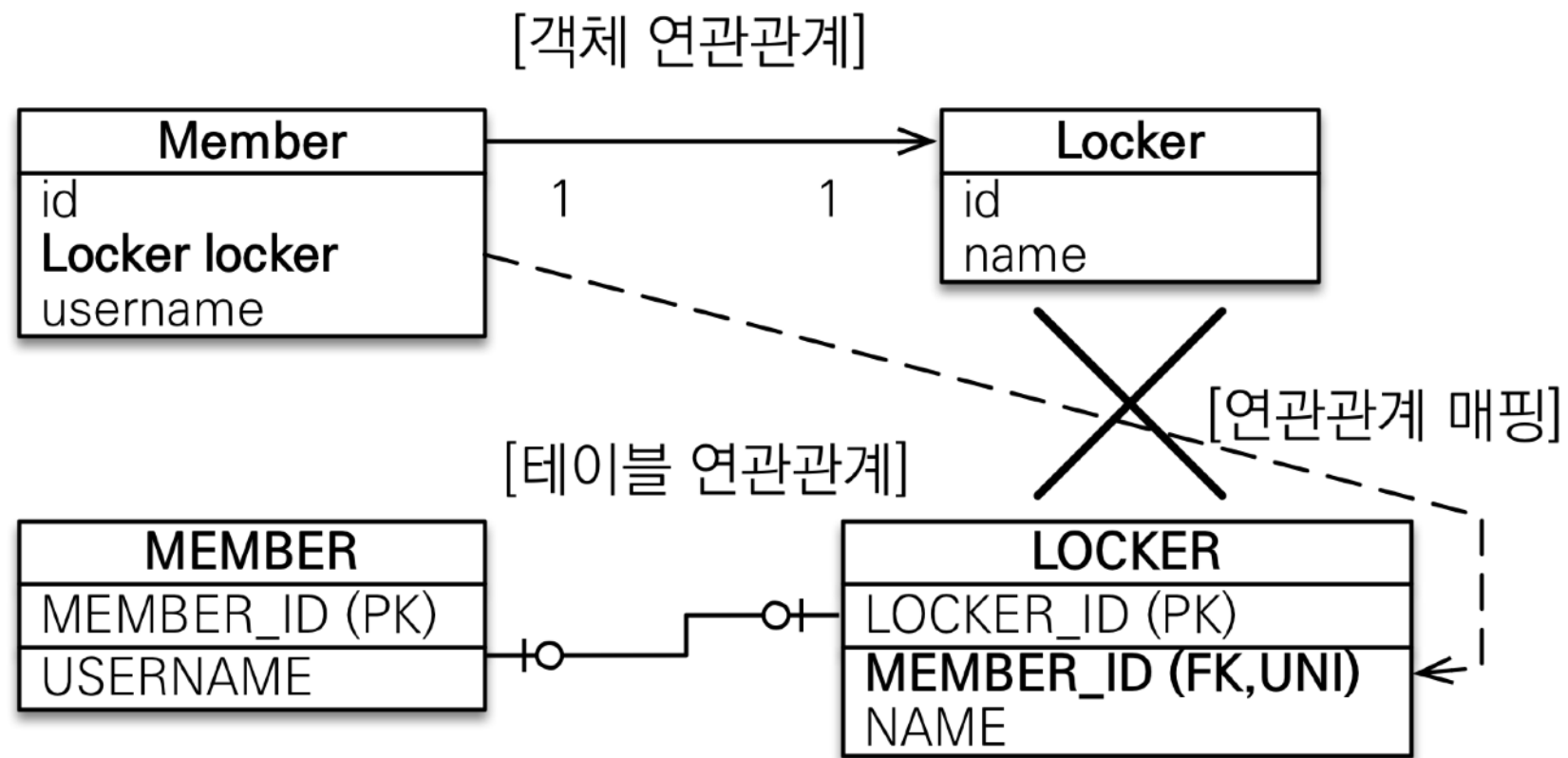
일대일: 주 테이블에 외래 키 양방향



일대일: 주 테이블에 외래 키 양방향 정리

- 다대일 양방향 매핑 처럼 **외래 키가 있는 곳이 연관관계의 주인**
- 반대편은 mappedBy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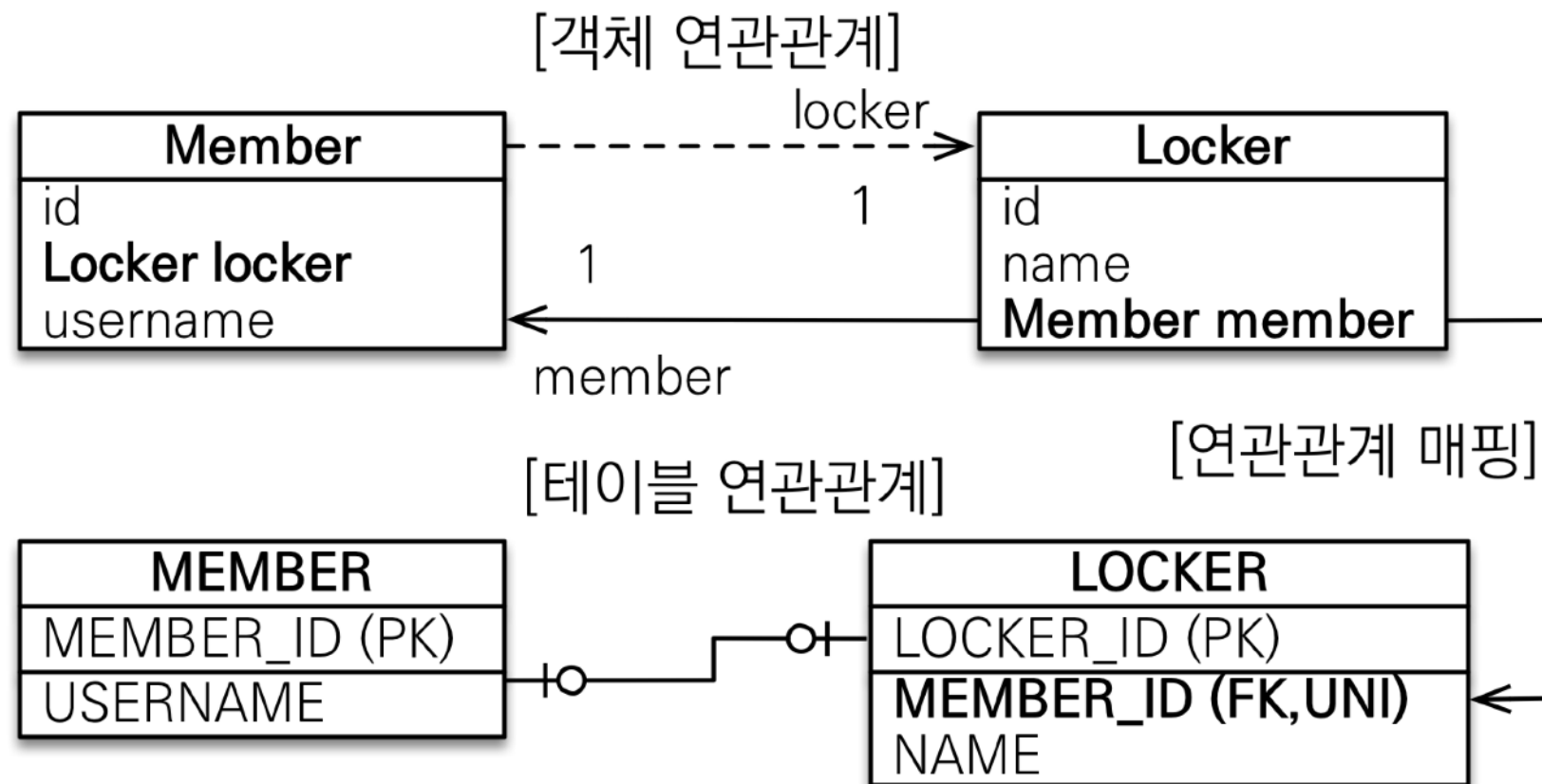
일대일: 대상 테이블에 외래 키 단방향



일대일: 대상 테이블에 외래 키 단방향 정리

- 단방향 관계는 **JPA 지원X**
- 양방향 관계는 지원

일대일: 대상 테이블에 외래 키 양방향



일대일: 대상 테이블에 외래 키 양방향

- 사실 일대일 주 테이블에 외래 키 양방향과 매핑 방법은 같음

일대일 정리

• 주 테이블에 외래 키

- 주 객체가 대상 객체의 참조를 가지는 것 처럼 주 테이블에 외래 키를 두고 대상 테이블을 찾음
- 객체지향 개발자 선호
- JPA 매핑 편리
- 장점: 주 테이블만 조회해도 대상 테이블에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 가능
- 단점: 값이 없으면 외래 키에 null 허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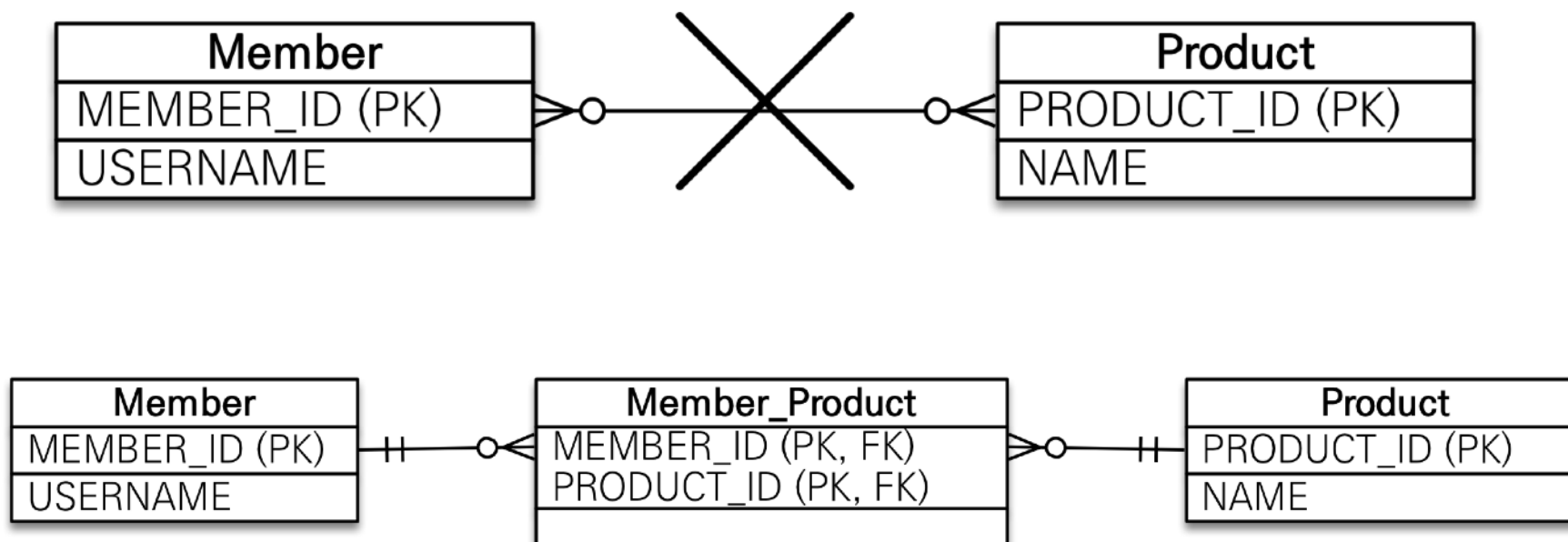
• 대상 테이블에 외래 키

- 대상 테이블에 외래 키가 존재
-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선호
- 장점: 주 테이블과 대상 테이블을 일대일에서 일대다 관계로 변경할 때 테이블 구조 유지
- 단점: 프록시 기능의 한계로 **지연 로딩으로 설정해도 항상 즉시 로딩됨**(프록시는 뒤에서 설명)

다대다 [N:M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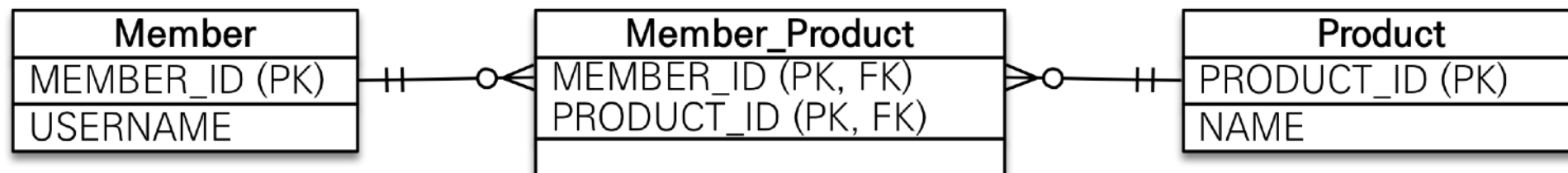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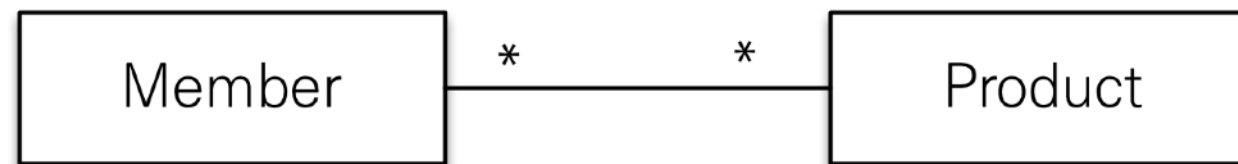
다대다

-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정규화된 테이블 2개로 다대다 관계를 표현할 수 없음
- 연결 테이블을 추가해서 일대다, 다대일 관계로 풀어내야함



다대다

- 객체는 컬렉션을 사용해서 객체 2개로 다대다 관계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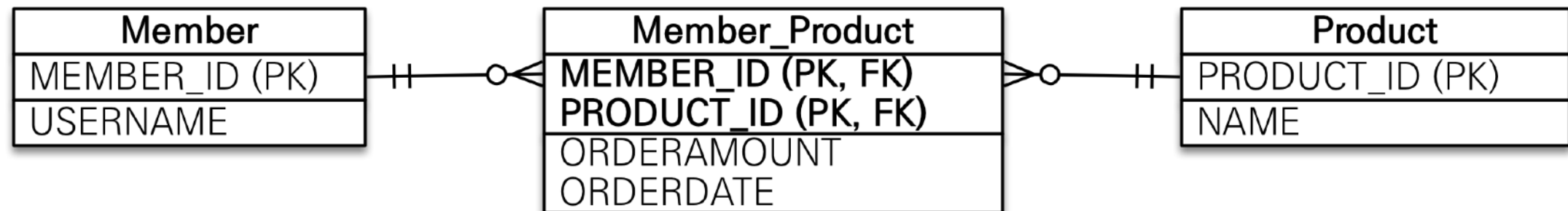


다대다

- **@ManyToMany** 사용
- **@JoinTable**로 연결 테이블 지정
- 다대다 매핑: 단방향, 양방향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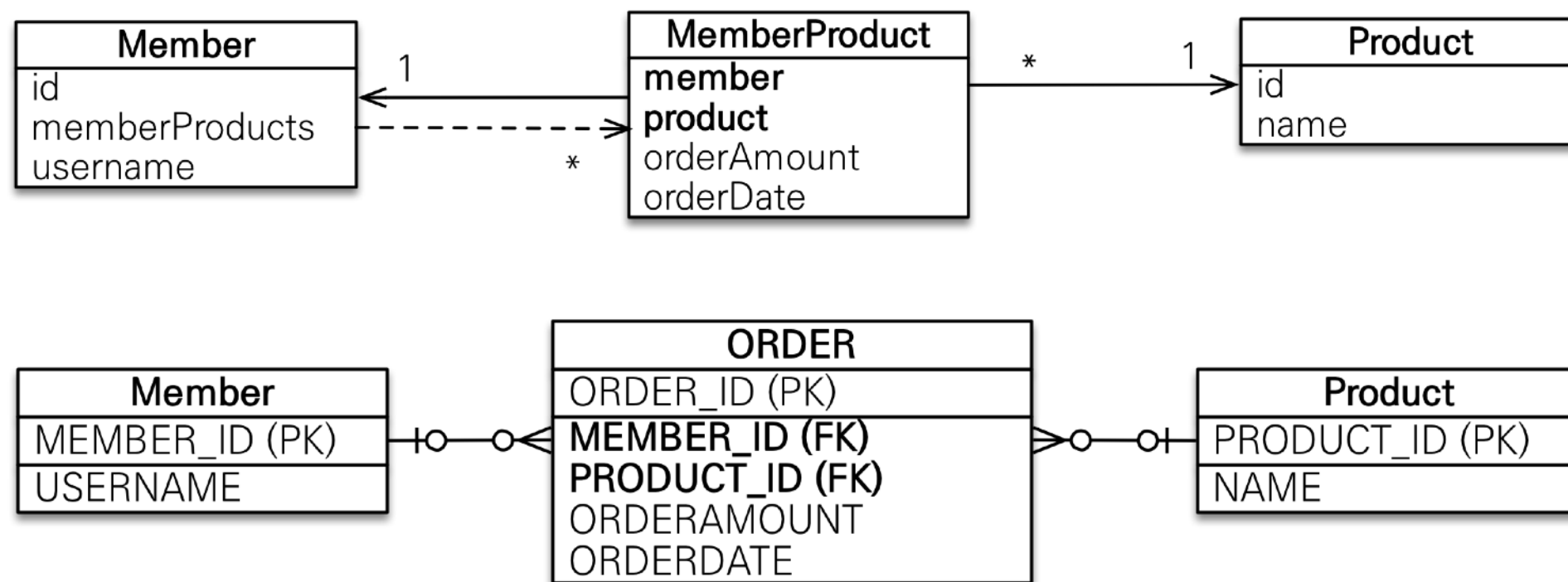
다대다 매핑의 한계

- 편리해 보이지만 실무에서 사용X
- 연결 테이블이 단순히 연결만 하고 끝나지 않음
- 주문시간, 수량 같은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음



다대다 한계 극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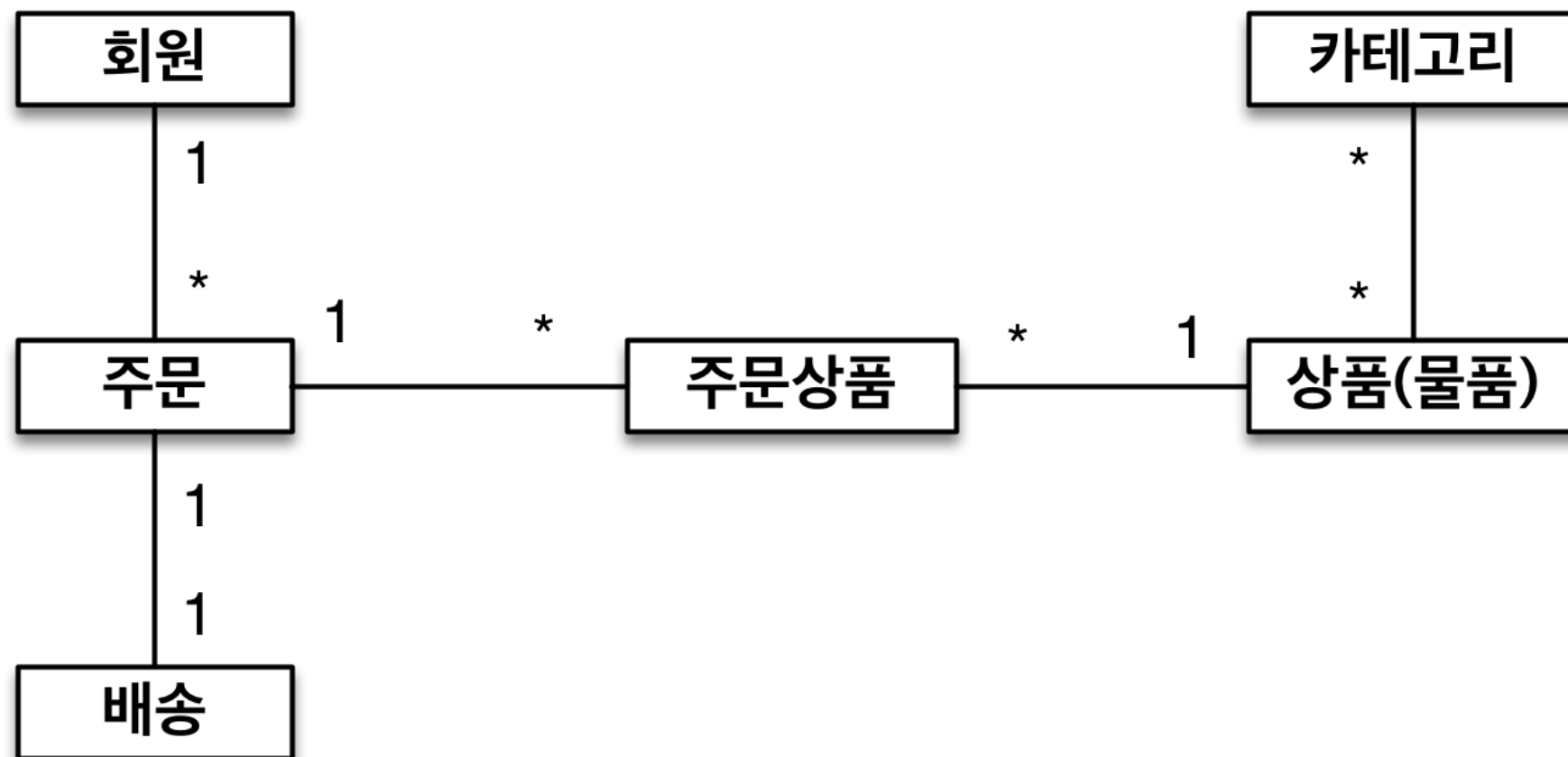
- 연결 테이블용 엔티티 추가(연결 테이블을 엔티티로 승격)
- @ManyToMany -> @OneToMany, @ManyToOn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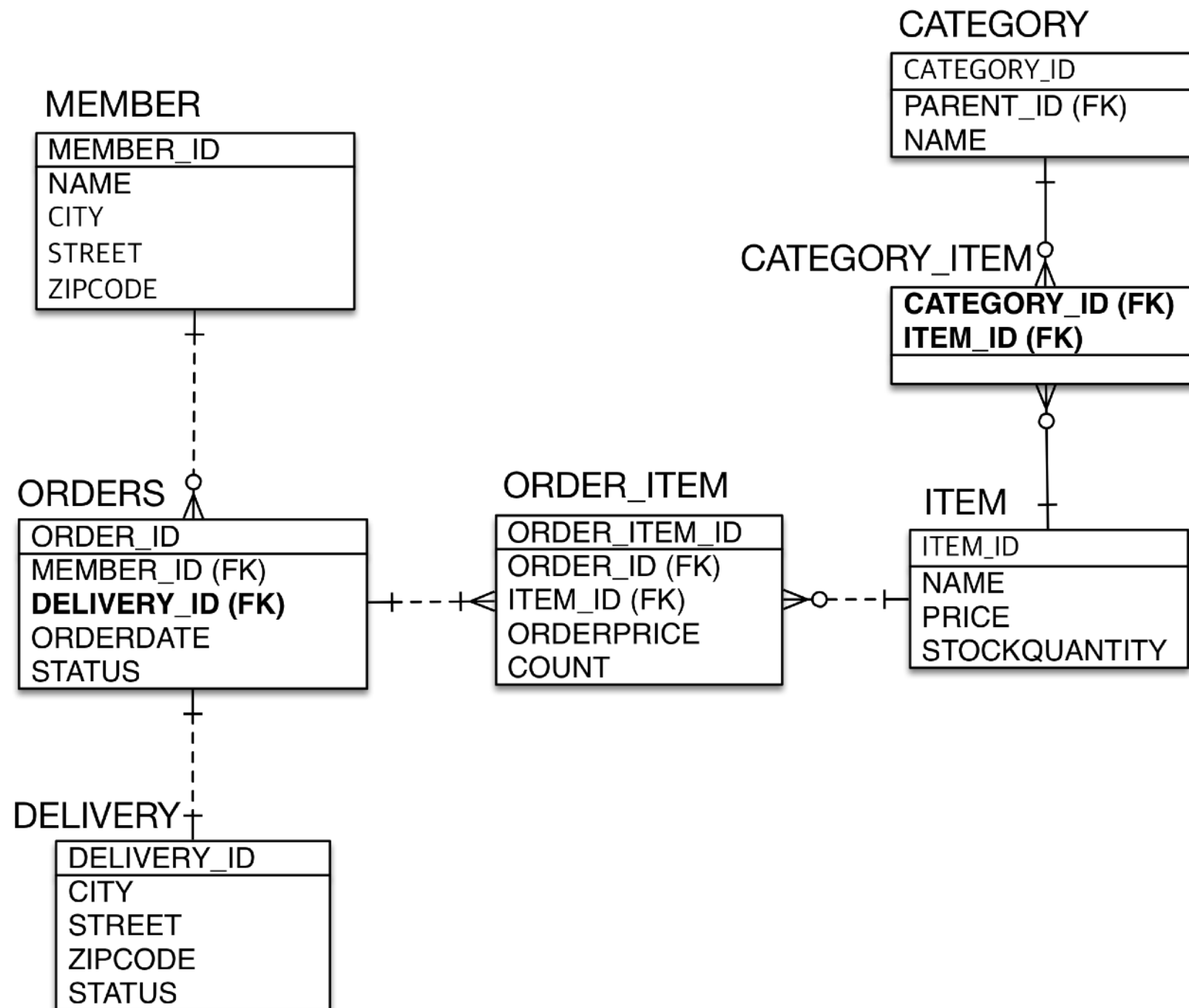
실전 예제 - 3. 다양한 연관관계 매핑

배송, 카테고리 추가 - 엔티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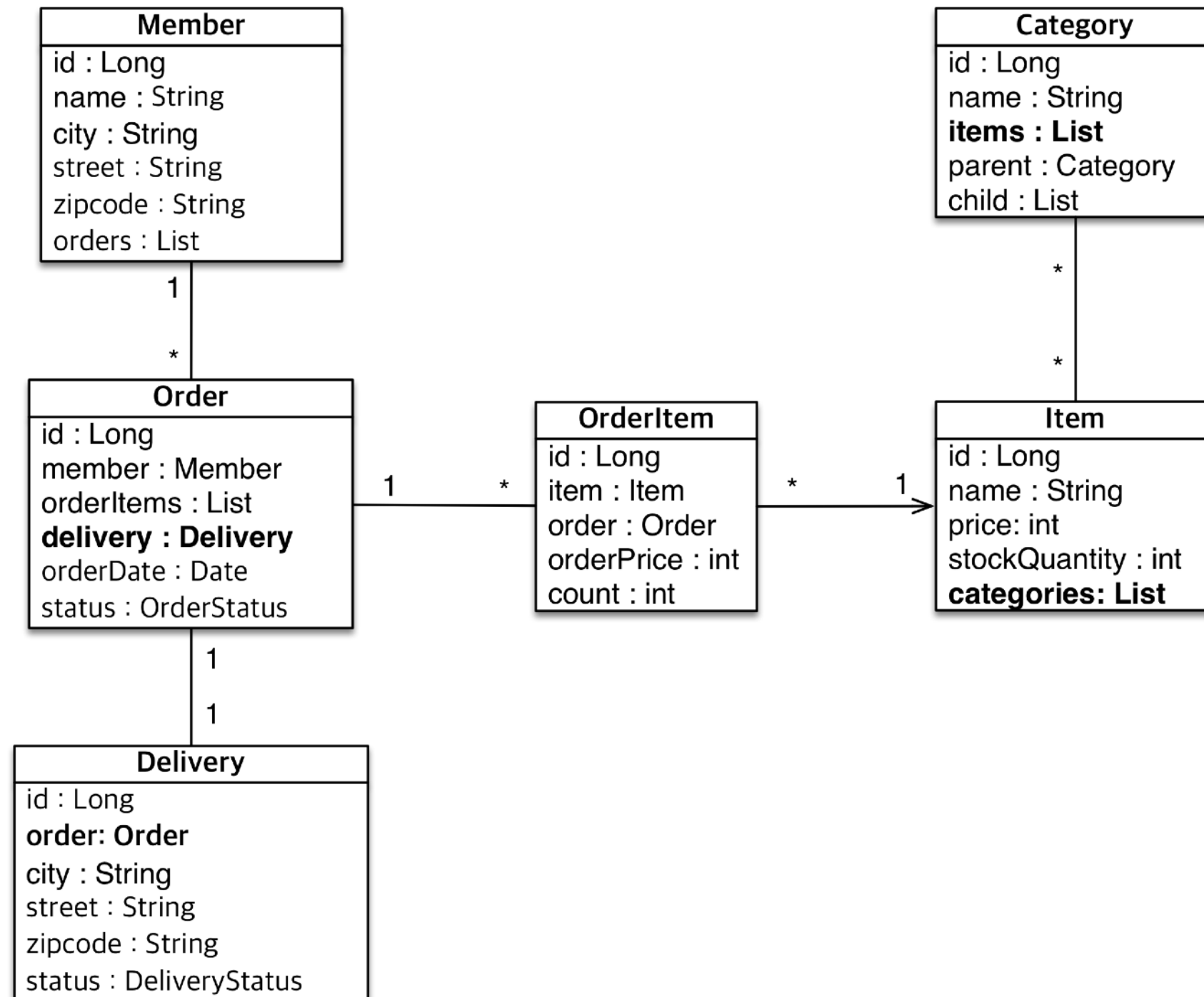
- 주문과 배송은 1:1(@OneToOne)
- 상품과 카테고리는 N:M(@ManyToMany)



배송, 카테고리 추가 - ERD



배송, 카테고리 추가 - 엔티티 상세



N:M 관계는 1:N, N:1로

- 테이블의 N:M 관계는 중간 테이블을 이용해서 1:N, N:1
- 실전에서는 중간 테이블이 단순하지 않다.
- @ManyToMany는 제약: 필드 추가X, 엔티티 테이블 불일치
- 실전에서는 **@ManyToMany 사용X**

@JoinColumn

- 외래 키를 매핑할 때 사용

속성	설명	기본값
name	매핑할 외래 키 이름	필드명 + _ + 참조하는 테이블의 기본 키 컬럼명
referencedColumnName	외래 키가 참조하는 대상 테이블의 컬럼명	참조하는 테이블의 기본 키 컬럼명
foreignKey(DDL)	외래 키 제약조건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. 이 속성은 테이블을 생성할 때만 사용한다.	
unique nullable insertable updatable columnDefinition table	@Column의 속성과 같다.	

@ManyToOne - 주요 속성

- 다대일 관계 매핑

속성	설명	기본값
optional	false로 설정하면 연관된 엔티티가 항상 있어야 한다.	TRUE
fetch	글로벌 페치 전략을 설정한다.	- @ManyToOne=FetchType.EAGER - @OneToMany=FetchType.LAZY
cascade	영속성 전이 기능을 사용한다.	
targetEntity	연관된 엔티티의 타입 정보를 설정한다. 이 기능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. 컬렉션을 사용해도 제네릭으로 타입 정보를 알 수 있다.	

@OneToMany - 주요 속성

- 일대다 관계 매핑

속성	설명	기본값
mappedBy	연관관계의 주인 필드를 선택한다.	
fetch	글로벌 페치 전략을 설정한다.	- @ManyToOne=FetchType.EAGER - @OneToMany=FetchType.LAZY
cascade	영속성 전이 기능을 사용한다.	
targetEntity	연관된 엔티티의 타입 정보를 설정한다. 이 기능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. 컬렉션을 사용해도 제네릭으로 타입 정보를 알 수 있다.	